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0호 [주제 제25669호] 주제 106(2017)년 6월 9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지상대 해상순항로케트시험발사를 보아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
과학원에서 새로 개발
한 신형지상대 해상순
항로케트시험발사를
보아주시였다.

황병서동지, 리병철
동지, 리영길동지,
김정식동지, 정승일
동지가 동행하였다.

출중한령도력과
결단력, 드센배짱과
담력으로 세상을 놀래
우는 사변을 편이어
안아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발사준비과정에 새로
개발한 무한궤도식자
행발사대차의 기동특
성, 전투진지에로의 진
입과 신속한 사격준
비, 발사조종계통들의
동작밀음성도 검토확
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서 중시하고 있는
신형지상대 해상순항
로케트를 출동히 연구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원의 일군들
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 국방과학부문
에서 초정밀화, 최첨

군사강국의 높은령마루를 향해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합선집
신집드높이 비약해나가고있는 국방
과학원에서는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기술력을 보다 향상시킨 신형

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를 새로 연구
개발하고 첫 시험발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얼마전 태양절경축 열병식광장
을 요란하게 누벼간 다종화된 타
격수단들중의 하나인 신형지상대
해상순항로케트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합선집
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대로 타
격할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
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신
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의 전술기
술적제원들과 기술적특성을 확증

하며 로케트와 무한궤도식자행발사
대차를 비롯한 무기체계전반에 대
한 전투적용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지상대
해상순항로케트의 전술기술적제원을
료해하시고 시험발사를 진행할때 대
한 명령을 주시였다.

발사된 순항로케트들은 정확
하게 선회비행하여 조선동해상에
벼워놓은 목표선을 탐색하여 명중
하였다.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한궤도식자행

발사대차에서의 순항로케트의 발
사관리탈특성과 발동기들의 시동
특성, 초저공순항비행체제에로의
신속한 진입특성을 확증하였으
며 초저공장거리순항비행체제에

서의 비행안정성, 여러가지 비행
경로에 따르는 기동특성, 탄상부
함유도머리의 목표포착 및 유도
정확성, 적아식별특성, 목표진입
시 급격한 고도이행능력을 검토
하였다.

단화된 지상, 해상, 공중무기체계
들을 광활 개발하여 우리 공화국
의 실제적인 군사적공격능력을
힐있게 과시하고있다고 치하하시
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일
군들이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심장으로 지지하고 멀져
일어나 혼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정체성, 적아식별특성, 목표진입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소년단창립 71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해님따라 휘날리는 블은넥타이》 진행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공연 관람

【평양】 6월 8일밤 조선중앙통신 실질들은 6, 6월을 조선소년

제8차 대회로 성대히 경축한
은 나파 학생소년들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소리가 악동하는 내
조국에 점을 읊어 대해주며 끝없이
울려져지고 있다.

조선소년단창립 71돐경축 학

생소년들의 종합공연에 《해님따라

휘날리는 블은넥타이》가 7일과

8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여 있는 세상에 들을 없는

아이들의 궁전에서 조선소년단

창립 70돐을 즐기 높이 노래하게

된 학생소년들의 적정으로 하여

봉황장소는 끝없이 설레이고 있

었다.

조선교통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시동지
와 조선교통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
원장인 최태복동지, 평일 창
조선교통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회
비서, 김승우 교육위원회 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여한 행렬로 축하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 강안체육학

원원, 평양초등학교 원아들, 만

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

년궁전에 출소조원들과 전국학

생소년에 출소원들과 함께

연하는 종합공연은 서장 6, 6

월은 우리 명절 온 나라 명절

제8차 대회 시작되었다.

공연 무대에는 활창
《데원수님은 우리의 해님》,
기악중주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꿈》, 무용이 아끼

고 걸고 으신 위대한 평도자

《장길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데원수에 경 중히

모세지자 판관자들은 한없는

그 뜻빛내현입니다》, 시와 무용

《나어린 복수단》을 비롯한 다

채로운 종목들이 춤했다.

사회주의 강국의 려명을

불러오는 해빛 같은 미소로 이

나라 수원한 아름답들을 따뜻이

풀어안아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꿈을

노래 한 노래 창 《원수님 밝은

웃음》, 남중창 《우리 원수님

최고야》는 판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종창이 아끼 《우민 소년단원인

걸요》, 민족기악 3종주 《사랑의

여기 신 위대한 수명

김일성대원수님과 새 세대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며 천년시

창과 무용 《려명거리 우리 절

금봉이》, 무용 《춤을 추는 생길

세》 등의 종목들은 다사다운

세상의 사랑과 축복이 차넘치는

사회주의 학원에서 마음껏 배우

며 재능을 끌어우는 우리 학생

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끌어올리며 끄러운 박수를

미처울을 퍼트렸다.

사회주의 강국의 려명을

불러오는 해빛 같은 미소로 이

나라 수원한 아름답들을 따뜻이

풀어안아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꿈을

노래 한 노래 창 《원수님 밝은

웃음》, 남중창 《우리 원수님

최고야》는 판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종창이 아끼 《우민 소년단원인

걸요》, 민족기악 3종주 《사랑의

풀수수풀 았네》, 가무 《사랑의

악기로 우리 행복 노래불리요》

도장과 무용 《려명거리 우리 절

금봉이》, 무용 《춤을 추는 생길

세》 등의 종목들은 다사다운

세상의 사랑과 축복이 차넘치는

사회주의 학원에서 마음껏 배우

며 재능을 끌어우는 우리 학생

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끌어올리며 끄러운 박수를

미처울을 퍼트렸다.

사회주의 강국의 려명을

불러오는 해빛 같은 미소로 이

나라 수원한 아름답들을 따뜻이

풀어안아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꿈을

노래 한 노래 창 《원수님 밝은

웃음》, 남중창 《우리 원수님

최고야》는 판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종창이 아끼 《우민 소년단원인

걸요》, 민족기악 3종주 《사랑의

풀수수풀 았네》, 가무 《사랑의

악기로 우리 행복 노래불리요》

도장과 무용 《려명거리 우리 절

금봉이》, 무용 《춤을 추는 생길

세》 등의 종목들은 다사다운

세상의 사랑과 축복이 차넘치는

사회주의 학원에서 마음껏 배우

며 재능을 끌어우는 우리 학생

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끌어올리며 끄러운 박수를

미처울을 퍼트렸다.

사회주의 강국의 려명을

불러오는 해빛 같은 미소로 이

나라 수원한 아름답들을 따뜻이

풀어안아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꿈을

노래 한 노래 창 《원수님 밝은

웃음》, 남중창 《우리 원수님

최고야》는 판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종창이 아끼 《우민 소년단원인

걸요》, 민족기악 3종주 《사랑의

조선소년단창립 71돐경축 학생

소년들의 종합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행적

파업을 높이 달고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혁명인재, 사회주

의 조직의 창립 아들딸로 준비해

나갈으로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원수님의 모범으

로 대중을 위훈창조에 끌어들여

나갈 것이다.

한일상상, 김정일상상은

한국의 혁명학원, 강안체육학

원원, 평양초등학교 원아들, 만

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

년궁전에 출소조원들과 전국학

생소년에 출소원들과 함께

연하는 종합공연은 서장 6, 6

월은 우리 명절 온 나라 명절

제8차 대회 시작되었다.

공연 무대에는 활창

《데원수님은 우리의 해님》, 기악

중주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꿈》, 무용이 아끼

고 걸고 으신 위대한 평도자

《장길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명성을 끌어오는 우리 학생

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끌어올리며 끄러운 박수를

미처울을 퍼트렸다.

사회주의 강국의 려명을

불러오는 해빛 같은 미소로 이

나라 수원한 아름답들을 따뜻이

풀어안아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꿈을

노래 한 노래 창 《원수님 밝은

웃음》, 남중창 《우리 원수님

최고야》는 판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종창이 아끼 《우민 소년단원인

걸요》, 민족기악 3종주 《사랑의

풀수수풀 았네》, 가무 《사랑의

악기로 우리 행복 불리요》

도장과 무용 《려명거리 우리 절

감출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침략적본질

최근 미국의 『칼빈손』호, 『로날드 레이건』호에 호재 항공모함타격단들이 조선동 해에서 함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이 동시에 함동군사연습에 동원되기는 처음이다.

미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강경한 경고로 된다고 표적적으로 떠들었다. 단순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협으로 스쳐보낼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전면전쟁도발을 노린 무력제 편성들을 유발하고 우리의 주요 군사대 상물들에 대한 타격을 위해 3 0 0 기에 달하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기상에 두고 있다. 광역목표는 우리의 해 및 로케트기지 등이다. 미국은 위험천만하게 대조선군사작전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를 놓고 미국의 한 암보전문가가 정한 것인가?

그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이 박두하였다. 『칼빈손』호와 『로날드 레이건』호에 항공모함타격단들이 조선반도에 위치에서 함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다. 그것을 실증해준다.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이 조선을 타격할 수 있는 계획에 접두하고 있다. 이것은 1991년의 만전평정제를 방불케 한다. 조미내전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오직 하나의 씨나리오 즉 전쟁을 의미한다. 미국이 조선군사체의 외교적 해결에 대해 데들도 있는 것은 군사적 타격을 위한 연락전술을 불파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강령나무가 지를 내놓는 것은 하나의 기만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새롭게 정될 때마다 대조선정책의 침략적본질이 날마다 드러났다.

최근에 트럼프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페어』라는 대조선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4대기조』라는 것을 내놓았다.

트럼프행정부가 내놓은 『4대기조』에는 군사력사용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4대기조』 발표를 전후해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인 물들이 나서서 조선군사체를 군사적방법으로 가 아니라 외교적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것이 연락전술이고 기만을 끌어온다.

역학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침략정책, 전쟁정책이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침략정책, 전쟁정책이라는 것을 증명으로 실증해 주었다. 전후에도 미국의 정책은 탈피하지 않았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들을 절전배치하고 일본, 남조선 등 주변세력을 학살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면대하는 두동력을 최대로 높여 끌어온다. 그간 군사연습을 해마다 광범위한 군사적도발을 일삼아왔다.

트럼프행정부는 전후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침략적성격은 더욱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응원 하나의 대규모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공격으로 모험타격단들이 핵전쟁으로 전 전략자산들을 대체적으로 블리고 우파를 핵전체력을 벌리고 스트리스구축을 『줄워드』호의 전투능력을 최대로 높여 끌어온다. 그간 군사연습을 해마다 광범위한 군사적도발을 일삼아왔다.

트럼프행정부는 전후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침략적성격은 더욱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가 필리핀네 대통령과의 전화대화에서 조선반도 주변에 배치한 2척의 해군수함을 폐용한 핵공격에 대해 언급한 사실,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수단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폭언한 사실이 그를 시작해 주고 있다.

트럼프행정부의 『4대기조』는 허황하고 기만적인 것이고 미국의 진짜 대조선정책의 본질은 명백히 핵공격으로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것이 연락전술이고 기만을 끌어온다.

역학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침략정책, 전쟁정책이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침략정책, 전쟁정책이라는 것을 증명으로 실증해 주었다. 전후에도 미국의 정책은 탈피하지 않았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들을 절전배치하고 일본, 남조선 등 주변세력을 학살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면대하는 두동력을 최대로 높여 끌어온다. 그간 군사연습을 해마다 광범위한 군사적도발을 일삼아왔다.

트럼프행정부는 전후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침략적성격은 더욱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응원 하나의 대규모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공격으로 모험타격단들이 핵전쟁으로 전 전략자산들을 대체적으로 블리고 우파를 핵전체력을 벌리고 스트리스구축을 『줄워드』호의 전투능력을 최대로 높여 끌어온다. 그간 군사연습을 해마다 광범위한 군사적도발을 일삼아왔다.

트럼프행정부는 전후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침략적성격은 더욱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응원 하나의 대규모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공격으로 모험타격단들이 핵전쟁으로 전 전략자산들을 대체적으로 블리고 우파를 핵전체력을 벌리고 스트리스구축을 『줄워드』호의 전투능력을 최대로 높여 끌어온다. 그간 군사연습을 해마다 광범위한 군사적도발을 일삼아왔다.

트럼프행정부는 전후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침략적성격은 더욱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는 단밀마적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군사적공격에서 솔로를 찾으며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씨야의 대통령선거개입 이후,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악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가 투모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의 고교에서 당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눈길이나 하지 않아. 우리는 미국과 끝까지 상대해줄 자신이 있다.

미국은 특별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평화를 구걸해본 적이 없다.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 평화를 자체의 힘으로 지켜왔다. 미국의 날로 경계되는 해위위협을 예방해왔다. 오늘날에는

다종화, 소형화가 실현된 각종 학관들을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갖추었다.

우리는 핵전쟁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선물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자위적국방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떠드는 외교적해결책, 평화에 대하여 한포각의 기대도 가지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것 부지기 위하여 고도의 경각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만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기미 보이기만 해도, 가차없이 핵불법을 풀어줄 것이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사상 최대의 재앙뿐이다.

총고전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할 것을 노린 핵전쟁도발의 대가로 미국이 선사반을 것은 사상 최대의 재앙뿐이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멋대로

정질식시킬 것을 겨냥한 악랄한 적대행위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상임비서국장을 포함한 일부 나라

의 책과 미싸일시험에 대해서는 우리

</